■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57-177.
http://doi.org/10.17948/kcs.2023..99.157

草廬 吳澄의 역학사상에 대한 陽村 權近의 수용과 비판 연구*

서근식(徐根植)**

목 차

1. 머리말
2. 權近易學에서 吳澄易學의 의미
3. 권근역학에서 오징역학의 수용
4. 권근역학에서 오징역학의 비판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吳澄의 역학이 權近의 역학에 어떻게 수용되고 비판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오징이 가장 얻은 것이 많았다는 『易纂言』과 권근의 『入學圖說』·『周易淺見錄』에 관하여 비교·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오징의 『역찬언』은 권근이 『주역천견록』을 집필하게 된 직접전인 원인이 되었다.

권근의 역학에서는 오징의 體用論이 朱熹의 입장을 이어받았으므로, 권근 역시 『입학도설』의 『周易』관련 「圖說」에서 체용론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권근만의 독창적인 체용이론도 보인다. 또한 권근은 『주역천견록』에서 오징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해석을 따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권근은 오징이 象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거나 『주역』 經文의 글자를 고치거나 異端에 빠졌다고 비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권근은 오징의 역학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5일 다산학술문화재단과 한국주역학회가 공동주최한 제34회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정약용과 원대역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 한국철학전공 초빙교수.

권근이 오징의 『역찬언』에 대해 수용도 하고 비판도 한 측면은 후에 정약용의 『易學緖言』「吳草廬纂言論」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권근의 입장은 정약용에 앞서 오징의 역학을 수용・비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權近, 吳澄, 『入學圖說』, 『周易淺見錄』, 『易纂言』, 受容, 批判, 體用論.

1. 머리말

陽村 權近(1352~1409)[1]은 麗末鮮初의 대학자로서 현존하는 『周易』해석 가운데 최초의 해석서인 『周易淺見錄』[2]의 저자이며, 조선전기 성리학의 입문서인 『入學圖說』[3]의 저자이다. 그리고 『입학도설』 가운데 하나인 「大學指掌之圖」가 退溪 李滉(1501~1570)의 『聖學十圖』「大學圖」에서 "조선이 건국한 처음에 권근이 圖를 작성하였다."[4]라고 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근의 經學저술로는 『주역천견록』과 『詩淺見錄』, 『書淺見錄』, 『春秋淺見錄』, 『禮記淺見錄』을 합본한 『五經淺見錄』[5]이 있다. 권근은 여말선초의 혼란한 시기에 성리학이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권근의 역학에 미친 草廬 吳澄(1249~1333)[6]의 『易纂言』[7]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권근의 역학이 원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역천견록』에 오징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주역』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오징의 역학에 대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易學

1) 本貫은 安東이고, 初名은 晉이고, 字는 可遠・思叔이고, 號는 陽村・小烏子이고, 諡號는 文忠이다.
2) 『周易淺見錄』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편찬한 『五經淺見錄』에는 筆寫本과 木版本이 모두 影印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96년 影印한 『韓國經學資料集成』 87(『易經』 1)의 筆寫本을 참고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筆寫本과 木版本을 대조하여 인용하겠으며, 筆寫本과 木版本 모두에 誤脫字가 있으므로 수정하여 인용하겠다. 그리고 面數는 『韓國經學資料集成』 87(『易經』 1)의 筆寫本 面數를 따르겠다.
3) 본 논문에서 『入學圖說』은 安東權氏서울花樹會에서 1982년에 影印한 板本을 사용하겠다.
4) 『定本 退溪全書』 4(1차본 全15冊)(퇴계학연구원, 2002)「進聖學十圖箚【竝圖】」〈大學經〉 81면. "國初臣權近作此圖."
5) 『五經淺見錄』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1995년 影印되어 편찬되었다.
6) 撫州 崇仁 사람으로 字는 幼淸이고, 만년의 字는 伯淸이다.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그를 草廬先生이라고 칭하였다.
7) 본 논문에서는 臺灣의 商務印書館에서 民國72(1983)에 影印한 『文淵閣四庫全書』 經部 易類 22에 들어있는 『易纂言』을 사용할 것이며, 또한 같은 책에 실려 있는 吳澄의 또 다른 易學著述인 『易纂言外翼』도 참고하겠다.

哲學史』[8]나 『周易硏究史』[9] 등에서 오징의 역학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징의 역학을 권근이 어떻게 수용・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주역천견록』은 『주역』 전체를 주석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설명되어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으므로,[10]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해석한 책이다.

권근의 역학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번역본으로는 권근 지음/권덕주 옮김, 『입학도설』, 을유문화사, 1974와 권근 지음/이광호 외 옮김, 『국역 삼경천견록(詩・書・周易)』, (사)청명문화재단, 1999가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기훈의 박사학위논문[11]과 곽신환, 임창순, 서근식, 금장태 등의 연구 성과[12]가 있다. 또한 권근의 경학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강문식의 논문[13]도 있다. 오징 역학의 전제적 체계와 분석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이범학과 임재규의 논문[14]이 있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15]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권근의 역학과 오징의 역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16]는

---

8) 朱伯崑의 『易學哲學史』를 보면 第3冊의 第8章 第1節 元代象數之學에서 元代易學을 다루고 있는데, 吳澄은 독립된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概說부분에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元代易學에 대해서는 朱伯崑, 『易學哲學史』(全4冊), 中國, 崑崙出版社, 2005의 第3冊 5-84면을 참조.

9) 廖名春・康學偉・梁韋弦이 공동집필한 『周易硏究史』를 보면 第5章 宋元易學(下) 第3節 宋易在元代的發展 부분에서 元代易學을 다루고 있지만 吳澄은 개별적인 항목에서 서술되지 않았고 概說부분에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元代易學에 대해서는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硏究史』, 中國, 湖南出版社, 1991의 312-321면을 참조.

10) 많이 서술된 부분과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호, 「『주역천견록』 해제」, 『國譯 三經淺見錄』, (사)청명문화재단, 1999, 5-6면을 참조.

11) 이기훈, 「權近의 『周易淺見錄』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12) 곽신환, 「周易淺見錄과 陽村 權近의 易學」, 『精神文化硏究』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임창순, 「周易淺見錄의 學問的 意義」, 『書誌學報』 4, 한국서지학회, 1991; 서근식, 「權近易學의 體用論的 構造에 관한 硏究」, 『東洋哲學硏究』 33, 동양철학연구회, 2003; 금장태, 「『周易淺見錄』과 陽村 權近의 도학적 易해석」, 『퇴계학보』 118, 퇴계학연구원, 2005.

13) 강문식, 「權近의 經學과 經世觀」,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이 논문은 수정・보완하여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일지사에서 출판되었다.)

14) 이범학, 「吳澄의 易學과 邵雍」, 『한국학논총』 3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9; 임재규, 「吳澄의 『周易』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15) 자세한 것은 임재규, 같은 글 2017, 189면의 주9)를 참조할 것.

16) 이기훈,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92, 대한철학회, 2004; 김재갑, 「『周易淺見錄』의 『易纂言』」 受容과 批判」, 『백악논총』 2, 동방대학원대 출판부, 2009; 임재규, 「權近의 『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吳澄의 『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

3편이 있다. 이기훈의 논문은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려다보니 논의만을 제시하고 끝낸 부분이 있다. 김재갑의 논문은 단순히 오징과 권근의 역학을 1대 1로 대비만 시키고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임재규의 논문은 오징역학의 상수론적 측면이 어떻게 권근의 역학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오징의 글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지양하여 권근이 오징의 역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오징역학에 대한 관련성은 권근에게도 나타나지만 조선후기 茶山 丁若鏞(1762~1836)의 『易學緖言』「吳草廬纂言論」에서도 나타난다.[17]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오징의 역학이 조선역학사에서 권근과 정약용에게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권근의 역학에서 오징의 역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왜 오징의 역학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권근의 『주역천견록』에서 伊川 程頤(1033~1107), 晦庵 朱熹(1130~1200), 오징 등의 특징을 알아야만 권근역학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권근역학에서 어떠한 이유로 오징의 역학을 수용하고 있는가와 또한 어떠한 이유로 오징의 역학을 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권근역학에서 오징의 역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2. 權近易學에서 吳澄易學의 의미

권근이 『오경천견록』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권근의 증조부인 菊齋 權溥(1262~1346)는 晦軒 安珦(1243~1306)의 제자이며, 益齋 李齊賢(1287~1367)의 장인으로 주자학을 唱導한 인물이다. 또한 안향은 원나라에서 『朱子全書』를 베껴온 인물이다. 증조부의 영향을 받아 권근은 주희의 4전제자였던 원나라 학자인

고전연구』 46,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21.

17) 정약용의 『易學緖言』「吳草廬纂言論」에 관한 글은 이난숙, 「茶山 丁若鏞의 中國易學 批判 硏究: 『易學緖言』을 中心으로」,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4에서 1면 정도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임재규, 『다산 정약용의 역학이론』, 심산, 2019에 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오징의 역학에 대해 연구한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주역천견록』「序文」에 해당하는 글에서 오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최근에 초려 오징이 지은『역찬언』을 보았다. 그것은 卦·爻의 互體에서 象을 취함에 있어 發明한 것이 많아 이 經典(『周易』을 말함—필자 주)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주장이 기이한 것을 내세우기를 힘쓰고 牽强附會한 내용을 포함한데다 先儒의 설과 어긋나고 異端에 빠진 것도 간혹 있었다. 이에 나는 자신의 狂僭을 헤아리지 않고 내 견해를 1~2개 기록하여 그 뒤에 실었다. 이는 오로지 나 자신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18]

인용문에서 권근은 오징의 학설이 互體에서 象을 취한 것이 많아『주역』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기이한 것을 내세우고 異端의 학설에 빠진 것도 있어서 기록해 둔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분석해가면서 수용적인 측면과 비판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인용문의 앞의 글에서 권근은 "회암 주희가 다시 그것을 집대성하여『周易本義』를 지어 經文에 붙이고『易學啓蒙』을 지어 나머지 의미를 모두 드러냈다."[19] 라고 하여 주희에 의해 역학이 집대성되었음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주희의『주역본의』와『역학계몽』만을 공부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근은 北宋과 南宋의 역학사상을 정리한 후에 인용문과 같이 오징의 역학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오징역학의 특징이 호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주자학을 원나라로부터 수입하여 특별하게 얻은 것이 많은 오징의『역찬언』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자학은『五經』보다는『四書』를 해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증조부가 주자학을 창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권근은『사서』가 아닌『오경』을 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근은 무슨 이유로『오경』에 중점을 둔 것일까? 이는 오징이 주희의『四書集註』를 본떠서

---

18)『周易淺見錄』「易說上經」6면. "比觀草廬吳氏澄所著纂言. 其於卦爻互體取象 多所發明 亦有功於此經者也. 然其說務立奇異 容有牽强 又倍先儒之說 而淫於異端者 亦或有焉. 不揆狂僭 輒疏鄙見之一二 以著于後. 聊以自備遺亡而已."

19)『周易淺見錄』「易說上經」6면. "晦庵朱子又集大成 有本義以附於經文 有啓蒙以盡其餘意."

『五經纂言』을 저술하였고, 권근이 『오경찬언』을 본떠서 『오경천견록』을 저술하였다는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오경찬언』 가운데 『역찬언』에서 얻은 성과가 가장 컸다고 한다.[20] 이를 본떠 권근이 『주역천견록』을 저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근이 『오경천견록』을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오징의 『오경찬언』에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오징이 주희의 『사서집주』를 본떴다고는 하지만 중심이 『오경』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송대 유학자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점은 권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오경』 중심으로 유학을 이해할 경우 孔子와 孟子, 송대 유학자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21] 이를 통해서 오징과 권근은 송대 유학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송대 유학자들을 자유롭게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역본의』와 『程氏易傳』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이는 『今易』을 중심으로 하였고, 주희는 『古易』을 중심으로 하였다. 오징은 주희의 4전제자로서 주희의 뜻을 따라 『고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오징이 주희의 『주역본의』를 따랐음은 『역찬언』의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주희는 『易經』과 『易傳』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역경』을 주석한 다음에 『역전』을 주석하였다. 오징의 『역찬언』도 마찬가지로 주희의 『주역본의』와 같이 목차를 삼았다. 그렇다면 권근은 어떻게 하였을까? 권근은 정이의 『정씨역전』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周易傳義大全』과 같은 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씨역전』에는 없는 「繫辭傳」이나 「說卦傳」 등이 『주역본의』에는 있기 때문이다. 『주역전의대전』은 정이의 『정씨역전』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주역천견록』도 이를 따라 목차를 정한 것인 것 같다.[22][23]

---

20) 이기훈,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92, 대한철학회, 2004, 274면을 참조.

21) 이광호, 「『주역천견록』 해제」, 『國譯 三經淺見錄』, (사)청명문화재단, 1999, 3면을 참조.

22) 강문식은 그의 책(『권근의 역학사상연구』, 일지사, 2008, 163-166면)에서 權近이 朱熹의 여러 제자들의 『周易』에 대한 합본을 보았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周易傳義大全』을 참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강문식의 주장에 따라서 『周易傳義大全』을 참고했다고 보았다.

23) 이기훈은 "『周易淺見錄』은 『程氏易傳』이나 『周易本義』의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에 있어서는 『易學啟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권근의 『周易淺見錄』은 『周易』의

그런데 『주역천견록』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주희의 『주역본의』나 오징의 『역찬언』에서 보이는 「圖說」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역전의대전』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주역전의대전』에도 앞부분에 여러 「도설」이 있고, 『주역본의』와 『역찬언』에도 「도설」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주역천견록』에는 「도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권근이 『주역천견록』에서 「도설」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입학도설』에서 「도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도설』 前集의 25개 「도설」 가운데 『주역』과 관련된 「도설」이 10개나 있는 것은 이를 反證해 준다. 따라서 주희의 『주역본의』나 오징의 『역찬언』에서 보이는 「도설」들을 권근은 『입학도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권근이 주희나 오징과는 다른 측면이다.

3. 권근역학에서 오징역학의 수용

권근은 『주역천견록』에서 여러 차례 오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용하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도 있다. 먼저 수용하는 측면에서 오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오징은 주희의 4전제자로서 『주역본의』를 수용하였다. 『주역본의』는 앞부분에는 그림이 나오는데, 권근은 이 부분을 『입학도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희는 康節 邵雍(1011-1077)에게서 영향을 받아 「河圖」와 「洛書」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권근은 『입학도설』에서 「河圖五行相生之圖」와 「洛書五行相剋之圖」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하도오행상생지도」에서 권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하도」의 數는 五行의 生數가 그 成數를 거느려 각기 자신의 바른 위치에 있으면서 왼쪽으로 돌아 相生한다. 그러므로 水는 북쪽에 있어 木을 낳고, 木은 동쪽에 있어 火를 낳고, 火는 남쪽에 있어 土를 낳고, 土는 중앙에 있어 金을 낳고, 金은 서쪽에 있어 水를 낳고, 水는 또다시 木을 낳으니 순환이 무궁하여 造化가 행해지는 것이다.[24]

주석서이기도 하지만 해설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이기훈, 權近의 『周易淺見錄』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5면)라고 하였다. 『周易淺見錄』의 내용을 보면 권근은 『古易』과 『今易』의 학설을 자신의 입장에 맞으면 모두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권근이 『古易』의 입장을 따랐다 혹은 『今易』의 입장을 따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권근은 「하도」를 五行相生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주희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를 先天의 입장으로 보면 體用관계 가운데 '본체'에 해당한다. 또, 권근은 「낙서오행상극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낙서」의 수는 陽은 그 바른 자리[正方]에 있고, 陰은 그 모퉁이 자리[偏方]에 있다. 그러므로 1이 正北에 있어 西北의 6을 거느린 것이 水이고, 3이 正東에 있어 東北의 8을 거느린 것이 木이고, 2가 西南에 거하여 正西의 7과 이어진 것이 火이고, 4가 東南에 거하여 正南의 9와 이어진 것이 金이다. 水·木은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火·金은 음이기 때문에 변한다. 土가 중앙에 있으면서 10이 없는 것은 縱橫으로 10의 수를 끼고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방위인데 오른쪽으로 돌면서 相剋한다. 그러므로 水는 火의 극복이고, 火는 金의 극복이고, 金은 木의 극복이고, 木은 土의 극복이고, 土는 水의 극복이고, 水는 또 火의 극복이다.[25]

권근은 「낙서」를 五行相剋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주희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를 後天의 입장으로 보면 체용관계 가운데 '작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체용관계로 풀이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뿐만이 아니다. 선천인 「伏羲先天八卦」는 본체로 보았고, 후천인 「文王後天方位」는 작용으로 보았다. 권근은 『입학도설』에서 체용관계로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권근은 『입학도설』 「五經體用合一之圖」에서 體用論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주역』은 『오경』의 전체적 본체이고, 『春秋』는 『오경』의 전체적 작용이다. (…) 『주역』은 天地에 있는 道를 聖人이 체득한 것이고, 『춘추』는 성인에게 있는 도는 천지조차도 어길 수 없는 것이다.[26]

---

24) 『入學圖說』 「河圖五行相生之圖」 26左. "右河圖之水 五行生數 統其成數 而各居其方 左旋相生. 故水居北而生木 木居東而生火 火居南而生土 土居中而生金 金居西而生水 水又生木 循環無窮 而造化行矣."

25) 『入學圖說』 「洛書五行相剋之圖」 27右. "右洛書之數 陽居其正 陰居其扁. 故一居正北 而統西北之六者水也 三居正東 而統東北之八者木也 二居西南 而連正南之七者火也 四居東南 而連正南之九者金也. 水木陽 故不變 火金陰 故變. 若夫 土居中而無十者 縱橫十數 夾以成之也. 是其方位 右旋相克. 故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 水又克火也."

26) 『入學圖說』 「五經體用合一之圖」 24左-25右. "易 五經之全體也 春秋 五經之大用也. (…) 易者 道在天地而聖人之體得 春秋者 道在聖人而天地不能違者也."

이는 『오경』에서 『주역』은 전체적인 본체에 해당되고, 『춘추』는 전체적인 작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詩經』, 『書經』, 『禮記』는 『주역』과 『춘추』 사이에서 하나의 관점을 대변한다. 또 「五經各分體用之圖」에서는 각각의 경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27] 이와 같이 권근은 『오경』에 체용론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28] 이러한 체용론은 소옹에 의해 제시되었고, 주희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이를 오징이 수용하고 있고, 권근 역시 수용하고 있다. 『주역』에 있어서의 체용론은 주희의 특징적인 측면으로 이를 오징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근은 이를 받아들여 『오경』 전체를 체용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권근이 특징적인 부분이다.[29] 권근이 오징의 체용론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권근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권근이 『주역천견록』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징을 언급하면서 "괘·효의 호체에서 象을 취함에 있어 발명한 것이 많아 이 경전에 도움이 된다."[30]라고 한 말이다. 이 말에 따르면 권근이 오징의 역학을 수용한 이유는 호체로 상을 취함에 있어서 『주역』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역천견록』에서도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권근은 頤卦 六四 爻辭인 "거꾸로 부양 받는 것이나 길하니, 호랑이가 위에서 아래로 노리며 내려 보듯이 하며, 그 하고자 함이 쫓고 쫓듯이 끊임없이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顚頤吉 虎視眈眈 其欲逐逐无咎.]"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離는 거북을 상징하고 또 호랑이를 상징한다. 頤卦는

27) 『入學圖說』 「五經各分體用之圖」 25左를 참조.
28) 권근의 體用論적 특징에 관해서는 서근식, 「權近易學의 體用論的 構造에 관한 硏究」, 『東洋哲學硏究』 33, 동양철학연구회, 2003을 참고할 것.
29) 이기훈은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92, 대한철학회, 2004, 282면에서 "體用論에 있어서도 權近의 體用論은 朱熹보다는 吳澄의 體用論에 가깝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權近은 『五經』 전체를 體用論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權近의 독창적인 측면이지 吳澄의 영향을 받아들여 『五經』 전체를 體用으로 보는 體用論을 전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30) 『周易淺見錄』 「易說上經」 6면. "其於卦爻互體取象 多所發明 亦有功於此經者也."

離卦를 닮았다. 거북은 껍질 외부가 단단하기 때문이고, 호랑이는 文彩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으로 자신을 기르는 것으로는 거북만한 것이 없고, 밖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으로는 호랑이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頤의 初九와 六四는 두 가지 것을 상으로 취하였다. '視'는 역시 離卦에 속하니 눈[目]의 상이다. 호랑이는 항상 아래로 내려다본다. '耽耽'은 專一한 모양이고 '逐逐'은 서로 이어지는 모양이다. 육사가 초구에 대하여 賢者에게 몸을 낮춰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호랑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전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먹고자하는 마음이 계속되어 쉬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일하고 자신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윗자리에 거하며 아랫사람에게 구하는 道이다. 현자에게 몸을 낮추려는 마음이 전일하지 않다면 현자는 즐거이 善함으로써 고하려 하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조금 얻기도 전에 그만두게 된다."[31][32]

인용문 다음에 권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오징이 이 두 가지 상을 설명한 것은 주희가 밝히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대개 오징의 학설은 卦·爻·象의 범례에 대해서 발명한 것이 많다. 스스로 文王과 周公의 마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여 先儒와 차이를 두고자 애썼으므로 간혹 견강부회하거나 기교를 부리는 병폐 또한 많았다.[33]

권근은 주희가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혔다고 오징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교를 부리고 견강부회한 점이 없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다. 권근의 이러한 평가는 오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가 기교를 부리고 견강부회한 점이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오징이 주희가 밝히지 못한 象을 밝힌 것만은 사실이다. 비록 호체를 통해 象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31) 『易纂言』「上經」 卷1 頤卦, 69右. 『易纂言』의 내용은 『周易淺見錄』에서 인용한 부분에서 줄이거나 요약한 부분이 없으며, 또한 글자도 다르게 바꾸어 쓴 부분도 없다.

32) 『周易淺見錄』「易說上經」 頤卦 54면. "吳氏曰 離象龜 又象虎. 頤卦肖离. 龜者 以其介甲之外堅 虎者以其文明之外著. 夫自養於內 莫如龜 求養於外 莫如虎. 故頤之初九六四 取二物爲象. 視 亦离目之象也. 虎視常下. 耽耽 專一貌 逐逐 相繼也. 四之於初 其下賢求益之心 必如虎之視下求食 而後可其視下也 專一而不他 其欲食也繼續而不歇. 如是則於人不貳 於己不自足 乃得居上求下之道. 苟下賢之心不專 則賢者不樂告以善. 求益之心不繼則未少有得而止矣."

33) 『周易淺見錄』「易說上經」 頤卦 54-55면. "吳氏說此二象 亦發朱子之所未發. 大抵吳說於卦爻象例 多所發明. 自謂庶乎文王周公之心 然務爲新論 以異先儒 故往往亦多附會奇巧之病."

권근은 오징이 象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 未濟卦 卦辭인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거의 건너 그 꼬리를 적심이니, 이로울 것이 없느니라. [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坎은 여우가 되는데, 3효·4효·5효가 互卦로 감이 된다. 陽은 크고 陰은 작은데 六五는 陰柔이므로 '어린 여우'라고 하였다. '汔濟'는 거의 물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육오의 여우가 上九에 이르지 못하니, 이는 거의 건넜다 하더라도 건너지 못한 것이다. 下卦인 감의 初六은 九二와 연결되어 호괘인 감괘 아래 爻의 밑에 있다. 어린 여우의 몸이 앞에 있는 물에 있으니 거의 건넌 것이고, 그 꼬리가 뒤에 있는 물속에 있으므로 '그 꼬리를 적신다.'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아래 괘인 감을 여우로 본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34] 나는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우는 음인 육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듯하다. 하괘인 감괘는 '늙은 여우'가 되고 호괘가 되는 감괘가 '어린 여우'인 것이다.[35]

오징의 『역찬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권근은 대체적으로 오징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오징의 호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즉, 하괘인 감괘는 '늙은 여우'가 되고 호체가 되는 감괘가 '어린 여우'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호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징이 象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위의 2경우뿐이다. 그리나 頤卦 부분은 頤卦와 離卦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호체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호체에 관한 언급은 아래 인용문인 미제괘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권근이 『주역』 전체를 주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권근의 『주역천견록』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해석하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주역천견록』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징이 호체에 관해서 얻은 것이 많다고 언급한

---

34) 『易纂言』 「下經」 卷2 未濟卦, 81左-82右. "三四五互坎 坎爲狐. 剛大柔小 以六五陰柔 故曰小狐. (…) 未登上九之水外之岸 故曰汔濟 蓋六五狐之前體也. 若至上九 則爲出水登岸矣 未至上九 則是幾于濟而猶未濟也. 諸家說 以下卦之坎爲狐者于辭義皆未協."

35) 『周易淺見錄』 「易說下經」 未濟卦, 98면. "吳氏以爲 坎爲狐 三四五互坎. 陽大陰小 六五陰柔 故曰小狐. 汔濟 幾至於上. 蓋六五之狐 未至上九 是幾於濟 而猶未濟也. 下坎初六連九二 在互坎下畫之後. 小狐之身在前水而幾於濟 其尾在後水之中 故云濡其尾. 諸家以下坎爲狐者未協. 愚按 此得之. 但恐小狐非謂六五之陰. 當以下卦之坎爲老狐 互卦之坎爲小狐也."

것은『역찬언』전체를 볼 때의 입장이고,『주역천견록』의 각각의 괘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징의『역찬언』은 호체에 관해 얻은 것이 많지만 미제괘처럼 호체를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오징의 호체에 대해서는 임재규의 논문에서『역찬언』은 '易象'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역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징의 또 다른 저술인『易纂言外翼』에서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12가지 방법 가운데 호체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36]

4. 권근역학에서 오징역학의 비판

권근의『주역천견록』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해석한 책이므로 오징이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주역천견록』에서는 정이, 주희, 오징과 기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견해에 대해 동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비판하는 경우만을 살펴보겠다. 먼저 살펴볼 문제는 오징이『주역』의 경문을 고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오징은 주희가『고역』을 중심으로 한 것을 따랐으므로『주역』의 경문을 고치고 그렇게 보아야지만『고역』의 의미를 올바로 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오징이『주역』의 경문을 고침으로써 尊經의식이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권근은 小畜卦 上九 효사의 "이미 비가 내렸다가 이미 그쳤지만 (비 때문에 길이 좋지 않았는데) 수레를 얻어 타고 갔다. 부인이 점을 치니 위태롭다는 결과가 나왔다. 달이 거의 보름에 가까우니 군자가 출정하면 흉하다.[旣雨旣處 尙德載 婦貞厲. 月幾望 君子征凶]"에서 오징이 글자를 고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오징은 또 윗글 '덕을 숭상하다.[尙德]'의 '德'자를 京房(B.C. 77-B.C. 37) 등의 저작에 근거하여 '得'자로 하였다. 오징은 경전을 해석하면서 신기하게 보이기

36) 임재규는 그의 논문(「吳澄의『周易』해석 방법론」,『온지논총』51, 온지학회, 2017.05)의 결론에서 오징이『周易』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방법으로 卦變, 變卦, 互體의 3가지를 들고 있다. 互體에 대한 내용은 203-204면을 참고하길 바란다.

위해 선유들과 다르게 해석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널리 雜書를 인용하여 경문의 글자를 고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屯卦 六三에서는 '鹿'자를 '麓'자로 고쳤고,[37] '幾'자를 '機'자로 고쳤고,[38] 訟卦 상구의 '褫'자를 '摭'자로 고쳤고,[39] 이 괘[小畜卦]의 효사에서는 '幾'자를 '旣'자로 고친 것[40] 등은 오히려 본래의 글자를 남겨두고 다만 '어떤 글자[某字]는 어떤 글자[某字]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선유들이 경문 해석의 용례를 따르는 것이 낫다. 그러나 師卦의 卦辭에서 '丈人'을 '大人'으로 고쳤고,[41] 본 효사의 '尙德'을 '尙得'으로 한 것[42] 등은 그 본래의 글자를 제거하고 직접 본문을 고쳐 버렸다.[43]

오징은 인용문과 같이 『주역』의 경문을 고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고친 이유는 이렇게 고쳐야지만 주희가 근거한 『고역』에 맞는다고 하고 있고, 『역찬언』의 각 괘·효사에서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글자를 고치지 않는다면 『주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희는 『주역』의 경문을 고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으며, 권근도 오징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축괘 상구에서 '幾望'을 '旣望'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권근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권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징은 『孟子』와 『荀子』의 구절에 '幾'자가 '旣'자로 되어 있고, 또 『春秋左氏傳』의 "어찌 모두 점령할 수 있겠는가?[庸可幾乎]"[44]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幾'자와 '旣'자는 古字에서 통용되었다고 하였다.[45] 그러나 이 효의 윗글에서 이미 "이미 비가 내렸다가 이미 그쳤지만[旣雨旣處]"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동일한 효 가운데 다시 통용되는 글자를 사용하여 '幾'자를 '旣'자로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물며

37) 『易纂言』「上經」 卷1 屯卦 六三, 7左.
38) 『易纂言』「上經」 卷1 屯卦 六三, 7左.
39) 『易纂言』「上經」 卷1 訟卦 上九, 15右.
40) 『易纂言』「上經」 卷1 小畜卦 上九, 22右.
41) 『易纂言』「上經」 卷1 師卦 卦辭, 15左-16右.
42) 『易纂言』「上經」 卷1 小畜卦 上九, 22右-22左.
43) 『周易淺見錄』「易說上經」 小畜卦, 22면. "吳氏又以上文尙德之德 據京房等著作得. 吳氏解經 務爲新奇 以異先儒. 故旁引雜書 多改經文本字. 如屯九三鹿作麓 幾作機 訟上九褫作摭 及此爻幾作旣之類 猶存本字 但曰某作某 猶爲先儒釋經之例. 至師之卦辭丈人作大人 此爻尙德作得之類 去某本字而直改之也."
44) 『春秋左傳注疏』(『十三經注疏 整理本』16-19,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23(宣12年) 730면. "王曰 其君能下人 必能信用其民矣 庸可幾乎. 退三十里 而許之平. 潘尪入盟 子良出質."
45) 『易纂言』「上經」 卷1 小畜卦, 22左. "幾孟荀一行作旣. 今案 幾亦有旣音 左氏傳庸可幾乎 幾旣古字盖通用."

> 소축괘는 하나의 陰이 다섯 陽을 저지하고 상구가 괘의 끝에 자리하고 있어 저지함이 극에 이르러 완성되는 象이 있지만 부드럽고 겸손하여 저지하되 온화하게 하니 가득 차서 보름을 넘긴 달이 될 수는 없음에랴![46]

인용문에서 권근은 '幾望'이 '旣望'으로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근은 오징을 평가하여 "경전을 해석하면서 신기하게 보이기 위해 선유들과 다르게 해석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널리 잡서를 인용하여 경문의 글자를 고쳤다"라고 하였다. 『맹자』·『순자』·『춘추좌씨전』이 잡서는 아니지만 오징이 신기하게 보이려고 글자를 고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권근은 오징이 『주역』의 원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존경의식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미제괘 괘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징이 象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권근은 蒙卦 九二 象傳의 "'자식이 집안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剛과 柔가 만난다는 것이다.[子克家 剛柔接也.]"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가 생각하건대, 구이는 陽으로서 內卦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자식의 상이 되고, 또 坎卦는 둘째 아들이다. 육오는 柔로 윗자리에 있으면서 中을 주관함으로 어머니의 상이다. 강과 유가 접하여 그 일을 맡으니 어머니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상이다. 정이는 육오를 아버지로 보고 있고,[47] 오징은 육오를 며느리로 보고 있는데[48] 모두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49]

인용문에서 권근은 몽괘 육오를 '어머니'의 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정이는 육오를 '아버지'의 상으로 여기고 있고, 오징은 육오를 '며느리'의 상으로 여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몽괘 육오의 상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권근은

---

46) 『周易淺見錄』「易說上經」小畜卦, 21-22면. "吳氏因荀孟一行 幾作旣 又引左傳庸可幾乎 幾旣 古字通用. 然此爻上文 已有旣雨旣處之語 不應一爻之內 又用通用之字 以幾作旣也. 況小畜以一陰畜五陽 上九居卦之終 故爲畜極而成之象 但以柔巽畜而和之爾 未能便滿 而爲旣望之月也."

47) 『周易傳義大全』蒙卦 九二 爻辭에 대한 程頤의 주석. "以家言之 五父也 二子也 二能主蒙之功 乃人子克治其家也."

48) 『易纂言』「上經」卷1 蒙卦, 10左. "申明納婦吉之義也."

49) 『周易淺見錄』「易說上經」蒙卦, 16면. "愚謂 九二以陽居內而在下 子象也 又坎爲中男也. 六五以柔在上而主中 母象也. 剛柔相接 而任其事 幹母蠱之象. 程子以五爲父 吳氏以五爲婦 恐皆未然."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권근은 家人卦 九三 효사의 "집안사람[家人]이 엄하게 하니 뉘우치고 위태하지만 길하리라. 부인과 아이들이 희희덕거리면 끝내는 인색하리라.[家人嗃嗃 悔厲吉. 婦子嘻嘻終吝.]"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정이와 주희는 모두 '嘻嘻'를 기뻐 웃는다는 뜻[50]이며 엄하게 하는 것[嗃嗃]의 반대로 보았다.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없게 되는 것은 관대하거나 放縱하는 잘못 때문이니 '끝내는 인색하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嘻嘻'는 탄식하는 소리이다. 집안을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려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항상 슬퍼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크게 은혜를 해치는 것이므로 끝내 인색하다."[51] 이는 정이와 주희의 설명과는 반대가 된다. 내가 생각하건데 (…) 만일 오징의 설과 같다면 '희희' 역시 剛이 지나친 것이 되어 이 爻와 합치되지만 집안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근심은 항상 은혜가 正義를 압도하는 것 때문이지 정의가 은혜를 이기는 것 때문이 아니다.[52]

인용문에서 오징은 '희희'를 탄식하는 소리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정이와 주희가 기뻐 웃는 모습이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오징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강함이 지나친 것으로 효에는 걸맞지만, 집안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근심은 항상 은혜가 정의를 이기기 때문이므로 '희희'를 탄식하는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이는 오징이 '희희'의 상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권근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권근은 履卦 六三 효사의 "애꾸눈으로 보며 절름발이로 걸어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사람을 물어 흉하고 武人이 大君이 된다.[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 凶 武人爲于大君.]"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제 오징의 설을 보니 '于'자에 나아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위에 있는 乾을 대군으로, 육삼을 대군에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53] 또 흉함은 위에

---

50) 『周易傳義大全』 家人卦 九三 爻辭에 대한 程頤의 주석. "嘻嘻 笑樂无節也."; 『周易傳義大全』 家人卦 九三 爻辭에 대한 朱熹의 주석. "嘻嘻者 嘻嘻之反 吝之道也."

51) 『易纂言』 「下經」 卷2 家人卦, 15右. "嘻嘻歎聲. (…) 治家雖不可縱弛 (…) 致婦子之間 常聞愁恨之聲. 賊恩之大者 故終吝也."

52) 『周易淺見錄』 「易說下經」 家人卦, 67-68면. "程朱皆以嘻嘻 爲喜笑之意 嗃嗃之反. 治家無度 失於寬縱 故終吝. 吳氏謂 嘻嘻歎聲. 治家過嚴 致婦子之間 常聞愁恨之聲. 賊恩之大 故終吝. 與程朱正相反也. 愚謂 (…) 若如吳說 則嘻嘻亦爲過剛 正與此爻相合 然治家之患 常在乎恩之掩義 不在乎義之勝恩."

있으므로 신하가 군주에 의해 등용되는 것은 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효의 상은 재주는 없으나 의지가 강하고 바른 도리가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여 흉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같은 뜻이니 저것은 흉하고 이것은 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이 무인은 자신의 지위에서 망령되이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니 끝내 흉함이 없겠는가?[54]

오징은 대군을 상구로 보고 흉함이 상구에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권근은 위아래가 같은 의미로 저것[上九]은 흉하고 이것[六三]은 흉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흉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오징이 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징이 異端의 학설을 따랐다고 비판하는 점이다. 권근은 蠱卦 상구 효사, 頤卦 육사 효사, 離卦 구삼 효사 등에서 다양하게 오징의 학설이 이단을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권근은 頤卦 육사 효사에서 "근본적으로 老·佛에 빠져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징의 설을 보는 사람들이 마땅히 스스로 알아서 분별해야 한다."[55]라고 하여 이단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을 하였다. 여기서는 離卦 구삼 효사에서 "해가 기울어지려는데 걸렸으니, 무늬 없는 질장구를 두드리고 노래하지 않으면 아주 늙은이가 탄식하는 것이니 흉할 것이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凶.]"를 해석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권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징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흉하다. 삶과 죽음을 초탈한 사람만이 흉하지 않을 것이다."[56]라고 하였다. 이 또한 儒者의 말이 아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은 바로 낮과 밤의 도이다. 그것을 초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선이 그인가? 그런데 丹藥을 복용하면 不老長生한다는 설은 예로부터 효과가 없었다. 釋氏가 그인가? 그런데 그는 70세 정도에 죽어 겨우 중간 정도의 수명을 누렸다. 두 학파의 주장이 괴이하여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53) 『易纂言』「上經」 卷1 履卦, 24右. "大君 上九也. (…) 六三應上九以力 以效用于大君之象."
54) 『周易淺見錄』「易說上經」 履卦, 24면. "今觀吳說 亦就于字上得其說. 以上乾爲大君 而以三爲效用於大君. 又言凶在其上 故以爲以臣見用於君 而不爲凶也. 然此爻之象 才弱志剛履非其正 欲爲其所不能爲 而致凶者也. 上下一意 非有彼凶而此無也. (…) 此則妄自有爲於其位者也 其終无凶乎?"
55) 『周易淺見錄』「易說上經」 頤卦 55면. "又於大本上未免有淫於老佛之弊. 此觀吳說者 所當知而自擇也."
56) 『易纂言』「上經」 卷1 離卦, 76左. "以其近死故凶. 惟超出乎生死之外者 能不凶也."

> 선유들이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 오징이 『주역』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삶과 죽음을 초탈하여 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의 맞을 것이다.[57]

권근은 오징의 평가가 노·불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근은 '단약'이라든지 '석씨'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기훈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 오징이 노·불에 빠진 것이 아니라 象山 陸九淵(1139~1192)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58] 오징은 주희의 영향도 받았지만 말년에는 육구연의 영향도 받아 朱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인용문에서 오징이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흉하다. 삶과 죽음을 초탈한 사람만이 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정학하게는 노·불의 입장이 아니라 육구연의 견해가 들어간 것이다. 또한 권근은 蠱卦 상구 효사인 "王侯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일을 높이 숭상한다.[不事王侯 高尙其事.]"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오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세간에 처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모두가 비천한 일이다. 세간을 떠나 아무것도 하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상한 일이다. 아래 다섯 효는 자기 집안일에 부지런히 마음을 쓰지만 상구는 천하의 일조차도 비천한 것으로 보고 하려하지 않는데 자기 집안의 일이야 다시 말해 무엇하겠는가?"[59] 이는 儒者의 말이 아니다. (…) 아래 다섯 효 모두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 자기 집안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므로 언급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친부모를 버리고 윤리로 살아가게 한 뒤에야 본받을 만하다는 것인가? 지위가 없이 거하여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王侯를 섬기지 않더라도 또한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無父] 군주를 무시하는[無君] 도리이다. 또 그[吳澄]가 말한 '世間을 떠난다.'는 것은 더욱 말해

57) 『周易淺見錄』「易說上經」 離卦 60-61면. "吳氏謂 以其近死故凶. 惟超出死生之外者 能不凶也. 此亦非儒者之言也. 有生必有死 卽晝夜之道也. 能超出其外者誰歟. 謂神仙是邪. 則服餌之說 自古不效. 謂釋氏是邪. 則七旬而死 僅得中壽. 二氏怪誕無實 先賢論之詳矣. (…) 吳氏解易而有此言 何哉. 若曰 達者其心超然出乎死生之外而無憂 則庶幾哉."

58) 이기훈은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92, 대한철학회, 2004, 276-277면을 참조.

59) 『易纂言』「上經」 卷1 蠱卦, 44右. "凡處世間而有爲者 皆卑下之事 唯出世間而无爲者 乃高尙之事也. (…) 高尙下五爻 屑屑於一家之事. 至此則一國之事 天下之事 猶且視爲卑下 而不屑爲 彼一家之事 又何足道哉."

> 서는 안 될 것이다. 異端은 세간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지렁이가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은 못하고, 무리와 함께 거처하고 집에 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세간을 떠난 것인가? 한마디 말의 차이에서 생긴 폐단이 도리어 사그라지기에 이르니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60)

인용문에서 권근은 오징을 평가하기를 "이는 儒者의 말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오징의 평가가 유자의 말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無父·無君'의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는 오징이 老莊과 墨家의 학설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 뒷부분의 '세간을 떠난다.'는 말도 노자와 불교의 입장을 따른 것이므로 異端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간을 떠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오징이 육구연에게 영향 받은 것으로 朱陸和解의 관점이라고 비판을 피해갈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부·무군'에 관한 비판은 노장과 묵가의 학설을 따랐다는 비판으로 오징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오징의 역학이 권근의 역학에 어떻게 수용·비판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징은 주희의 4전제자이지만 『사서』보다는 『오경』에 공을 들여 『오경찬언』을 저술하였고, 권근은 이를 모방하여 『오경천견록』을 저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징이 가장 얻은 것이 많았다는 『역찬언』이 권근의 『입학도설』·『주역천견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관해 논술하였다. 권근은 오징이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장이 간결하고 쉽게 풀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수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징이 『주역』의 글자를 억측하여 고치거나 견강부회한 측면도 있으며, 異端의 측면이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도 하였다. 권근이 오징의 『역찬언』에 대해 수용도 하고 비판도 한 측면은 후에 정약용의

60) 『周易淺見錄』「易說上經」蠱卦 37-38면. "吳氏乃謂 凡處世間而有爲者 皆卑下之事 出世間而无爲者 乃高尙之事. 下五爻 屑屑於一家之事. 上九則天下之事 猶且視爲卑下 而不屑爲 後一家之事 又何足道哉. 此非儒者之言也. (…) 下五爻皆幹父蠱 以爲屑屑於一家之事 而不足道 則辭親滅倫然後爲可則者邪. 居無位之地 而高尙者 雖不事王侯 亦不幹父蠱乎. 是無父無君之道也. 又其所謂出世間者 尤非所宜言也. 異端自謂出世 亦不能如蚓之無求 未免於群居屋處 著衣喫飯 是果出於世間乎. 一言之差 弊將至於滅倫 不得不辨."

『역학서언』「오초려찬언론」으로 이어져 또한 수용 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권근의 입장은 정약용에 앞서 오징의 역학을 수용·비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권근은 원나라로부터 주자학을 수입한 입장에서 원나라 학자인 오징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서』보다 『오경』 중심의 사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오징과 권근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권근이 『오경천견록』을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오징이 주희의 『사서집주』를 본 떠 『오경찬언』을 저술한 것을 본뜬 것이다. 오징의 『오경찬언』 가운데 『역찬언』이 가장 얻은 바가 많으므로 『주역천견록』에서 오징의 『역찬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다면 오징의 『역찬언』이 『주역천견록』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오징은 경전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합당하게 관통시킨 공이 있고, 괘·효의 호체와 就象에 있어서 발명한 것이 많아 기여한 점이 크다고 하겠다. 권근의 역학에서는 오징의 체용론이 주희의 입장을 이어받았으므로 권근 역시 『입학도설』에서 체용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역천견록』「서문」에 해당하는 글에서 오징의 호체에 대해서 수용하는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주역천견록』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해석한 책이므로 오징의 호체에 관한 입장은 미제괘에서만 나타나 있다.

권근은 『주역천견록』에서 오징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해석을 따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象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거나 『주역』 경문의 글자를 고치거나 異端에 빠졌다고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비단 오징뿐만 아니라 정이와 주희, 平庵 項安世(1129~1208), 원나라 학자인 秋山 王申子(?~?)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권근의 『주역천견록』이 송나라의 여러 학자들을 존신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모두를 종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오징의 『역찬언』에 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最古의 『주역』해석서인 권근의 『주역천견록』과 중국역학을 비판하였던 정약용의 『역학서언』처럼 앞으로는 원나라의 역학사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권 근,『五經淺見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影印本, 1995.
권 근,『入學圖說』, 안동권씨서울화수회 影印本, 1982.
권 근,『周易淺見錄』『韓國經學資料集成』87(『역경』 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筆寫本, 1996.
이 황,「進聖學十圖箚」,『定本 退溪全書』(1차본 全15冊), 퇴계학연구원, 2022.
호 광 編纂,『周易』, 보경문화사 影印本, 1994.
吳 澄,『易纂言』『文淵閣四庫全書』經部 易類 22,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本, 民國72(1983).
吳 澄,『易纂言外翼』『文淵閣四庫全書』經部 易類 22,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本, 民國72(1983).

권 근 지음/이광호 외 옮김,『國譯 三經淺見錄』, (사)청명문화재단, 1999.
강문식,『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임재규,『다산 정약용의 역학이론』, 심산, 2019.
廖名春・康學偉・梁韋弦,『周易研究史』, 中國 湖南出版社, 199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十三經注疏 整理本』(全26冊),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00.
朱伯崑,『易學哲學史』(全4冊), 中國, 崑崙出版社, 2005.

강문식,「권근의 경학과 경세관」,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기훈,「권근의『주역천견록』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난숙,「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 비판 연구:『역학서언』을 중심으로」,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4.

곽신환,「주역천견록과 양촌 권근의 역학」,『정신문화연구』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금장태,「『주역천견록』과 양촌 권근의 도학적 역해석」,『퇴계학보』118, 퇴계학연구원, 2005.
김재갑,「『주역천견록』의『역찬언』」 수용과 비판」,『백악논총』2, 동방대학원대 출판부, 2009.
서근식,「권근역학의 체용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동양철학연구』33, 동양철학연구회, 2003.
임창순,「주역천견록의 학문적 의의」,『서지학보』4, 한국서지학회, 1991.
이기훈,「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철학연구』92, 대한철학회, 2004.
이범학,「오징의 역학과 소옹」,『한국학논총』3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9.02.
임재규,「오징의『주역』해석 방법론」,『온지논총』51, 온지학회, 2017.
_____,「권근의『주역천견록』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오징의『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태동고전연구』46,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21.

【Abstract】

A Study on YangChoun(陽村) Kwon Geun(權近)'s Acceptance and Criticism of Caolu(草廬) Wu Cheng(吳澄)'s Interpretation of *I Ching*

Seo, Geun-Sik*

In this thesis, how Wu Cheng(吳澄)'s Yixue(易學) was accepted and criticized by Kwon Guen(權近)'s Yixue(易學) was examined. That is, *Iphakdoseol* (『易纂言』) from which Wu Cheng(吳澄) gained most and Kwon Guen(權近) *Iphakdoseol* (『入學圖說』)・*Jooyoekcheonngyeonrok* (『周易淺見錄』). Therefore, Wu Cheng(吳澄)'s *Yizuanyan* (『易纂言』) seems to have been a direct reason for Kwon Guen(權近)'s writing of *Jooyoekcheonngyeonrok* (『周易淺見錄』).

As for Kwon Guen(權近)'s Yixue(易學), as Wu Cheng(吳澄)'s Ti-yong(體用) theory had succeeded ZhuXi(朱熹)'s position, Kwon Guen(權近) also wrote "Tushue"(「圖說」) regarding *Zhouyi* (『周易』) in *Iphakdoseol* (『入學圖說』) from the stance of Ti-yong(體用). In *Jooyoekcheonngyeonrok* (『周易淺見錄』), Kwon Guen(權近) had a positive viewpoint of Wu Cheng(吳澄)'s opinions and followed his interpretations in many parts. Yet, he criticized that Wu Cheng(吳澄)'s interpretation of Xiang(象) was wrong, that he changed letters in the scriptures of *Zhouyi* (『周易』), and that he fell into heresy. From which, it's been found out that Kwon Guen(權近) tried to have an objective view of Wu Cheng(吳澄)'s Yixue(易學).

Kwon Guen(權近)'s acceptance and criticism of Wu Cheng(吳澄)'s *Yizuanyan* (『易纂言』) was later led to Jeong Yak-Yong(丁若鏞)'s "Wucaoluzuanyanlun"(「吳草廬纂言論」) in Wu Cheng(吳澄). Accordingly, Kwon Guen(權近)'s stance was meaningful in that he accepted and criticized Wu Cheng(吳澄)'s Yixue(易學) before Jeong Yak-Yong(丁若鏞).

Keywords: Kwon Guen(權近), Wu Cheng(吳澄), *Iphakdoseol* (『入學圖說』), *Jooyoekcheonngyeonrok* (『周易淺見錄』), *Yizuanyan* (『易纂言』), Acceptance (受容), Criticism (批判), Tiyounglun (體用論).

접수일: 2023.03.24.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Visiting Professor, Major of Korea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